

자본의 노예 벗어나려면 똑똑한 소비를 하라



소비를 그만두다

하라카와 가스미 지음



소비를 멈출 수 있을까? 소비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할까? 현대인의 삶은 소비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는 소비자본주의 시대다. 많은 미디어와 매체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부추긴다. 과연 그럴까. 갈수록 자본과 기업은 개인의 시간과 소유를 빼앗고 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욕망에 이끌려 소비를 일삼고 있다.

일본의 행동하는 지식인이자 문필가인 하라카와 가스미가 펴낸 '소비를 그만두다'는 소비자본주의 모순을 날카롭게 꿰뚫는다. 저자는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부조리한 소비 패턴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개인들의 '헛된 소비'(현명하지 못한 소비)로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축적하고 더 강해진 자본은 그만큼 개인을 착취한다. '착취-스트레스-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는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자의 관점은 간단하다. 돈에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는 돈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탈소비'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는 먹고 사는 데 돈을 쓰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굳이 필요하지 않는 무언가를, 다시 말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을 허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저자는 저축이 미덕으로 치부되던 전후 세대에 태어났다.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소비가 미덕이던 시대를 몸소 겪었다. 소비자본주의의 태동을 지켜본 소비자 1세대인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주5일제, 무선 전화기와 인터넷 등장과 맞물려 소비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소비자본주의는 '동네'로 지정되는 사회적 공동자본의 소멸을 불러왔 다. 부가까지 창출에만 역점을 둔 경제성

장은 금전만능주의로 귀결되었다. 금융 빅뱅으로 글로벌리즘의 막이 올랐고 각 기업에 성과주의가 정착되었다. 그 결과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몇 해 전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는가. 혹은 외형은 어느 정도 달라졌을 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삶의 가치는 무참하게 훼손되고 있다. 인간소외, 양극화, 불평등이 초래한 문제는 시한폭탄처럼 점점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실 지난해 토마 피케티의 '자본론' 열풍이 불었던 것도 지금 방식의 자본주의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의 공유에서 비롯되었다.

저자는 삶과 노동, 소비를 일치시키는 순환사회만이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소상인'과 '탈소비'의 마인드로 재무장해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소비를 멈추자. <더숲·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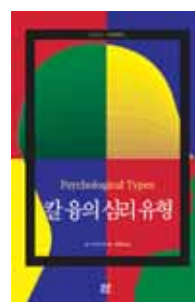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새로 쓰는 예술사=예술을 향한 탐닉과 집념은 역사를 어떻게 이끌었다. 정치적 난국과 삶의 황폐함 속에서도 화려하게 피어난 문화. 이런 난 역사를 관통하는 예술가의 숨결을 찾아낸 후원자들을 조명하는 책. 역사를 돌아보면 후원자 없이 예술활동을 펼치기는 힘들었다. 책은 고대 신라에서 고려, 조선, 근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00년의 한국사를 예술후원자로 꿰뚫어 읽는 작업을 시도한다.

<글항아리·2만6000원>

▲칼 융의 심리 유형=칼 융이 1921년에 발표한 'PSYCHOLOGISCHE TYPEN(심리적 유형)'을 융의 친구이자 번역자였던 영국의 분석 심리학자 H. G. 베인스가 영어로 옮긴 'PSYCHOLOGICAL TYPES'를 우리말로 번역한 책. 심리 유형의 대표적인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칼 융은 고대 그리스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역사를 들춘다. 그노시스주의와 교회의 신학 논쟁을 비롯해 일찍부터 유형의 존재에 눈을 뚫던 인물들의 정신세계를 두루 소개하고 있다.



<부글북스·2만원>

▲공짜 점심은 없다=건강하고 균형 잡힌 투자문화를 위해 리스크와 수익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금융과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또한 기적 같은 환상이 아닌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지식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책이다. 수익이 있다면 리스크 또한 있다는 자명한 투자 원리를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개인용 투자상품들을 예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아토펙·1만5000원>

▲음식중독=비만 전문의 박용우 박사가 파헤친 음식 중독의 실제. 먹고, 후회하고, 나도 모르게 또 먹는 악순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을 일으키는

맛 '쾌미' 때문이다. 만성 스트레스, 수면 장애, 설상, 트랜스 지방, 밀가루 등 몸에 나쁘다는 말로 뭉뚱그려진 다섯 가지 음식 중독의 요인을 밝히고,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음식 중독의 유형과 그 해법을 공개한다.

<김영사·1만3000원>

▲여성주의 경제학=10여 년 동안 경제학에 젠더를 접목한 연구를 해온 경제학자 홍태희 교수가 여성의 현실을 담은 경제학을 소개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여성의 권익만을 내세우는 경제학에 머물지 않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대안으로 여성주의 경제학을 제시한다.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경제 이론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발전론, 경제성장론, 돌봄

경제학을 통해 차근차근 제시한다.

<한울아카데미·2만9000원>

▲토지, 정치, 전쟁=1930년대 에스파냐에서 전개된 토지개혁을 역동적인 현실 정치 속에서 분석한 연구서다. 책은 토지 문제를 둘러싼 개혁 세력의 입장과 활동 뿐만 아니라 반대 세력의 입장과 활동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토지 개혁을 추진한 과정만큼이나 그것을 저지시킨 과정도 동시에 고려할 때 각당과 사회단체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삼천리·2만9000원>

▲풍수화=김용은 박사가 반세기 동안 천착해온 한·중·일 관계학을 집대성한 저서. 그는 민족의 개성 즉 원형의 발원지를 한국은 바람(風), 중국은 물(水), 일본은 불(火)에 비유해 삼국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한다. 책은 격변하는 신동북아시아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히는 한반도에서, 한국이 지정학적 운명을 극복하고 동북아의 중심축으로서 미·일·러·중 열강을 아우르면서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한다.

<맥스미디어·2만5000원>

권력의 기술



리더라면 한비자처럼, 참모라면 마키아벨리처럼

신동준 지음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지낸 바 있는 21세기경영연구소 신동준 소장이 펴낸 '리더라면 한비자처럼, 참모라면 마키아벨리처럼'은 고전을 관통하는 리더십 비책을 담고 있다.

한비자와 마키아벨리는 인간이란 본래 이익을 추구하고, 피해를 극도로 꺼리는 성정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 같은 성정은 덕과 예로 교화할 수 없기 때문에 법처럼 강력한 교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비자"와 "군주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시의에 부합하는 임기유연과 단호한 결단, 강력한 추진력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권신(權臣)의 발호를 미연에 봉쇄해야 한다. 이는 보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문이다. 마키아벨리는 어찌 하나밖에 택할 수 없다면 신민들로 부터 사랑을 받는 관정(官政) 대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맹정(猛政)을 택하라고 주문했다. <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어린이 책

▲어린이 콜럼버스 세계지도책=아이의 탐구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세계지도책. 우리나라가 속한 대륙은 무엇인지, 지구 반대편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자연스레 관심이 확대되도록 세계 지도, 상세 지도 외에 대륙별 지도를 실었다. 아이들이 직접 나라와 수도를 찾아볼 수 있게 지도마다 찾기 박스와 좌표를 넣었다.

<바킹·1만3000원>

▲마티스의 정원=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앙리 마티스: 컷 아웃(The Cut-Outs)'라는 이름으로 전시 중인 작품을 모티브로 만든 그림책. 마티스가 색채 실험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그려



있으며 그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은 서로 다른 색이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직접 보면서 색채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주니어PHK·2만5000원>

▲행복한 물고기 외=한쪽 페이지에는 물고기가, 나머지 페이지에는 글씨가 써 있다. <공금해요>, <떨려요>, <놀라워

요>, <화나요>, <자랑스러워요>, <쌘나요>, <기뻐요>, <흐뭇해요> 등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실제 감정들을 담았다. <행복한 엄마 새>, <행복한 꼬마 괴물>도 함께 나왔다.

<보림·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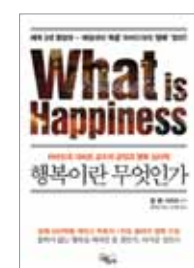
▲친구야, 고백할 게 있어=청소년들

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인 노경실 작가의 작품. 동성 친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정 문제, 이성 친구와의 성 문제, 반부격차에서 생기는 친구 관계, 학교 폭력으로 벌어지는 잘못된 친구 관계 등 광범한 주제부터 다소 민감한 주제까지 7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와이스콜·1만1000원>

▲UFO 옆 동네=고양이 학교 시리즈의 작가 김진경이 그동안의 판타지 동화와는 반대로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펴냈다. 동화는 여러 아파트 단지가 나란히 놓여 있는 곳에 사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 친구들과, 세상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준다.

<한솔수북·9500원>

행복의 열쇠 '긍정 마인드'



행복이란 무엇인가

왕엔밍 엮음

"긍정 심리학은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긍정 심리학 덕분에 삶이 더욱 즐거워졌고, 지금까지도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긍정 심리학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지난 2006년 하버드 대학에서는 무명의

교수가 이끄는 강의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 인기는 학생들의 가족들까지 강의실로 불러들이며 경청하게 만들었다. 바로 탈 벤 사하르 교수가 '행복'에 대해 이야기 한 '긍정 심리학' 강의였다.

중국의 심리학 박사 왕엔밍이 사하르의 강의를 듣고 엮은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출간했다. 왕엔밍은 10년 동안 심리상담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의 비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은 끊임없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훈련이 필요한 것이었다.

<느낌이 있는책·1만4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